

민족시인 '죽형 조태일' 삶과 시 계승

19일 조태일 25주기 문학축전
곡성조태일시문학기념관서 개최
시낭송·공연·시화전·문학상 시상
생전 활동했던 '시인'지 복간 눈길

죽형(竹兄) 조태일 시인(1941~1999)의 삶과 시 세계를 기리는 '2024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이 오는 19일 오후 3시 곡성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고여 있는 시, 움직이는 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학축전은 제6회 조태일문학상 시상식도 겸해서 펼쳐진다.

곡성군과 (사)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리며 시낭송을 비롯해 공연, 시화전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먼저 축전은 석곡지역아동센터 어린이로 구성된 꿈키움드림오케스트라의 공연으로 막을 연다.

가수 겸 작곡가 서혁진은 조태일의 시노래를 들려준다. 서혁진은 MBC '위대한 탄생', 브레이크스, 오마이걸 '승희' 등 보컬을 가르쳤으며 M.net '보이스코리아'에 출연한 바 있다. 광주시립합창단 상임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바리톤 이형기는 대중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선사한다.

이어 류경, 박두규, 정원도, 한종근 시인의 시낭송도 펼쳐진다. 특히 정원도 시인은 조태일 시인의 시 '국토' 연작시 (48편)에서 일부를 뽑아 재구성한 '매시업 국토'를 낭송한다.

정 시인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한 매시업 작품을 매개로 조태일 선생님의 시집에 적용했다"며 "국토" 같은 연작시집이었기에 가능한 시도였고, 직접 구현할 수 있어서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25주기를 맞아 조태일 시인을 추모하는 시화전도 열린다. 조태일 시인 시와 조태일문학상 수상시인을 비롯해 조시인의 시 정신을 계승하는 시인들의 작품 50여 편이 전시될 예정이다.



2024 죽형 조태일 문학축전 이 오는 19일 오후 곡성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문학축전 모습.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 제공>

아울러 제6회 조태일 문학상 시상식도 열린다. 시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나 (푸른사상간)를 펴낸 박석준 시인이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총상금 2000만원, 조태일 시인의 대표 시 '국토서시'를 새긴 정병래 전각가의 전각 작품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이밖에 25주기를 맞아 '시인'지 복간, 추모 시집 '어떤 바람이 감히 이 사랑을'이 발간돼 의미를 더한다.

특히 '시인'지는 고(故) 김지하 시인을 비롯해 양성우, 김준태 시인 등을 발굴하고 문학으로 70~80년 불의한 시대를 시와 비평으로 질타했다.

통권 42호로 복간됨에 따라 '시인'지 명맥을 잇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969년 8월 월간지로 창간한 '시인'지는 1970년 11월까지 16호까지 발간됐다. 이후 1983년 5월 무크지 형태로 복간돼 1986년 8월까지 4권이 더 나왔다. '시인'지로 등단한 이도운 시인이 2003년 9월 재복간해 21권을 냈으나 2019년 9월 다시 중단됐다.

이후 2015년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가 꾸려지면서 잡지를 복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점차 모아졌고, 마침내 잡지가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있

었다. 이번 호는 조태일 시인 25주기를 조망하는 다양한 특집을 비롯해 한국 문단의 굵직한 현안을 다루고 있다.

구중서 문학평론가는 '특집 1 조태일의 삶과 시'에서 "4·19 세대 출신 장본인인 조태일 시인의 위상과 성격은 어떠한가. 그의 문단 데뷔작 '아침 선박'이 응축된 언어의 탄력으로 신선한 선언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특집 2 '시인', 시의 새 시대를 열다'에서는 '시인'지를 통해 등단한 고원 시인을 비롯해 고평현, 박남준, 양성우, 정원도 등 시인들의 신작 시를 만난다.

조태일 시인 제자이기도 한 황형철 기념사업회 홍보 담당은 "이번 '시인'지 복간은 조태일 선생님 25주기를 전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불의와 부조리한 시대 온몸으로 맞서 시혼을 불태웠던 선생님의 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태일 선생님이 타계하신 지 벌써 올해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문학축전은 군사독재 시절 시와 삶을 통해 치열하게 시대정신을 실천하셨던 선생님의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 예인들 '전통'의 재해석

국립남도국악원, 19일 소속 단원 예인전... 전통음악·씻김 등

씻김굿부터 기악연주, 무용극 등 출연진이 직접 구성부터 연출, 안무 작업까지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위촉·창작곡 또는 기성 레퍼토리만을 답습하지 않고 젊은 예인들이 손수 빚어낸 세 편 작품을 국악의 미래를 내다보는 가늠자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국악이 좋다

'젊은 예인전 II'를 오는 19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전야당에서 선보인다. 국악원 소속 젊은 단원들이 전통음악부터 창작음악까지 저마다 기량을 뽐내는 자리다.

공연은 김기덕의 '경기 호적풍류'로 막을 올린다. 호적(胡笛)이란 태평소의 다른 이름으로 풍부한 음량이 사물 반주와 함께 울려 퍼진다.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인 김기덕 단원은 현재 국악원 정단원이다.

신묘한 한국 전통귀신에서 모티브를 얻은 '도깨비의 밤', 반고를 치면서 추는 '수수반고'는 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전수자이자 대전시 무형유산 살



국립남도국악원 '젊은 예인전' 공연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필이춤 이수자 홍보희의 춤사위에 실린다. 끝으로 허정승의 '씻김: 놀음'이 관객들을 만난다. 망자의 혼백을 낚아 올음으로 위로하는 기존

씻김굿과 달리, 남성 소리꾼들의 장점을 부각, 색다른 음향 효과를 연출한 무대다. 허 단원은 현재 국악원 성악단 악장이며 제49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에서 판소리 명창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장악과 정순영 주무관은 "전통의 명맥을 계승하면서도 이를 새롭게 해석하는 미래 국악인들의 연주가 관객들에게 새로운 미적 정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법정에 선 아기사슴 코딱코

광주예술의전당, 24일 가족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말하는 '잠꼬대 동산'의 재판장, 오 늘은 나무꾼에게 선녀의 목욕 장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사슴 코딱코'의 재판이 있는 날이다.

원래 이름은 코코였으나 너무 '딱'한 사연을 지녔기에 '코딱코'라 불리게 된 사슴의 변화가 무대 위에서 시작된다. 나무

꾼에게 선녀의 개인정보를 알려줬지만 나뭇잎의 이 유가 있던 코딱코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전당)이 아트위크 가족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오는 24일 오후 7시 30분 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며 작·연출에 오준석, 김두리·김유민·설재영·윤이지가 출연할 예정이다.

극 중 코딱코는 자신의 녹음을 노리는 뱀 사냥꾼에게 쫓기고, 산에서 나무꾼을 만나 목숨을 부지한다. 나무꾼은 사슴에게 장가를 가고 싶다는 소



광주예술의전당 '사슴 코딱코의 재판' 공연 장면.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원을 빌고 코딱코는 선녀들이 목욕하는 곳을 알려주며 날개옷을 훔치려고 말한다.

선녀들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언니, 평생 살아왔던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노래를 부르며 코딱코의 유죄를 주장한다.

관객들은 직접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빨간 공(유죄)과 파란 공(무죄), 노란 공(기권)으로 나눠 투표하도록 유도했으며 어린이 관객들의 주장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6세 이상 관람.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쇼팽·차이코프스키 선율에 젖다

'피아니스트 최혜지 김민호 조인트 리사이틀' 19일 광주디엠홀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주최하는 연주회를 '조인트 리사이틀(Joint recital)'이라 부른다. 협연은 물론 각 연주자의 독주를 포함하기에 출연진의 기량을 가늠할 수 있다.

클래식 예술단체 아르플레닛(대표 최혜지)이 '피아니스트 최혜지 김민호 조인트 리사이틀'을 오는 19일(오후 7시) 광주디엠홀에서 펼친다. 쇼팽과 차이코프스키에 대한 독창적인 해석을 가미, 클래식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자리다.

피아니스트 최혜지는 쇼팽 '녹턴' 2번, 13번, 20번을 연주한다. 총 21개 소곡으로 구성된 이 야상곡은 그의 음악적 서정을 담고 있다. 고전 오페

라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리듬, 구조, 멜로디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민호와 함께 연주하는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포렌즈 편곡 버전도 레퍼토리에 있다. 발레 음악으로도 널리 사랑받는 곡으로 두 연주자가 네 개의 손(포렌즈)으로 섬세히 표현한다.

전남대 음악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혜지는 아르플레닛 대표로 활동하며 Cuara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협연 무대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Remember Artist' 공연을 기획해 기획자로서의 역량도 보여줬으며, 올해 기획시리즈 I '쇼팽 서거 175주기 음악회'와 기획시리즈 II



피아니스트 최혜지 피아니스트 김민호

'사운드 오브 뮤직' 등을 앞두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민호는 전남대 음악학과 졸업 후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8 한량뮤직 콩쿠르(3위), 제20회 광산대 콩쿠르(1위)에서 입상했으며 광주문화재단 목요콘서트 '색채의 멜로디' 등에 출연해 왔다. 전석 무료, 네이버 폼 예약.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